

무안군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회의록

- 2023년 제2차 회의 -

□ 회의 개요

회의일시	2023. 10. 17.(화) 08:20 ~ 08:51
회의장소	무안군의회 소회의실
참석인원	4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3)
출석공무원	(간 사) 의회행정팀장 000 (서 기) 담 당 자 000
안 건	무안군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 무안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계획(베트남) 심사의 건
회의내용	별 첨

무안군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회의록

일 시: 2023. 10. 17.(화) 08:20~08:51

장 소: 무안군의회 소회의실

(08시 20분 회의 시작)

○ 간사 000

안녕하십니까? 무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 진행을 맡은 의회행정팀 장 000입니다. 연구활동과 생업으로 바쁘실텐데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내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무안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건에 대한 심사요구가 있어 무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심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무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이후 오늘이 첫 대면 회의인 관계로 심사위원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총 7명 중 참석하신 4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000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초당대학교 000님 참석하셨습니다. 초당대학교 000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문 000님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의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3명으로 무안군의회 000님은 국외출장 당사자로서 제척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000님과 000님은 개인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본 위원회 전차 회의 보고, 두 번째, 무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출, 세 번째, 무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네 번째, 무안군과 베트남 나트랑시 간 우호교류 기반 마련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전차 회의보고입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2023년 제1회 서면 심사회의를 개최하고 두 건의 공무국외출장 건을 원안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차 회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출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원 간 호선으로 민간위원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건 의결을 위해 먼저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

됩니다. 임시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무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바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임시위원장 후보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000

여기 관련해서 임시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구요. 바로 위원장을 선출해서 본안을 다루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간사 000

그럴까요?

○ 위원 000

위원장은 000 교수님이 하는 것이 어떨까요?

○ 위원 000

예, 우리 외부 위원 세 분밖에 아니시잖아요.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 간사 000

그러면. 그러면 부위원장님은...

○ 위원 000

우리 000 대표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 간사 000

대표님?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 위원 000

여기에 사람은 안...

○ 간사 000

오신 분에서 하셔야죠. 여기 안 계신 분이 할 수는.....

○ 위원 000

대표님, 대표님이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하시기도 그렇고.

○ 위원 000

민간인이라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 간사 000

예.

○ 위원 000

예.

○ 간사 000

그러면 위원님들이 추천해주셔서 000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은 000 대표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이 선출되신 000 위원님께서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 건부터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000

자, 그러면 본의 아니게 위원장님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래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에서 4명이 참석하여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2023년 제2차 개회를 선언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 무안군 나트랑시 간 우호교류 기반 마련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제1호 안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000

심사 안건 제1호 무안군과 나트랑시 간 우호교류 기반 마련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국외출장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이번 국외출장은 의원 5명, 공무원 6명 총 11명이 참여합니다. 출장기간은 2023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출장지역은 베트남 나트랑시와 달랏시 일원입니다. 출장목적은 오는 10월 31일 무안공항과 나트랑 깜란국제공항 간 정기항공 노선 첫 취항과 연계한 국외출장으로 정기노선 첫 취항의 의미를 부각하고 이를 대외에 알려 무안공항을 홍보하는 한편 정기 항공노선 취항을 계기로 베트남 나트랑시와 나트랑시 인민위원회와의 새로운 우호교류와 상호발전 등 협력체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주요 출장지는 첫째 날, 양 지역간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나트랑 시청과 나트랑시 인민위원회를 방문하고 둘째 날은 달랏시로 이동하여 최근 농촌마을 6차 융복합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커피 생산농장과 가공체험시설을 견학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도 6차 산업육성 등 농업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을 해야 할 때로 이곳을 벤치마킹 장소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아열대 작물 등 재배농가는 총 45농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농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커피 생산량이 세계 2위로 베트남 지역에 10여 군데의 주요 커피생산 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

회가 방문할 메린커피농장이 그곳 중 한 곳입니다. 마지막 날은 해당 지역 역사문화 자원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나트랑 포나가르 사원, 나트랑 대성당 등 견학할 계획입니다. 견학 목적은 우리 지역과 나트랑시와 교류 추진을 위해서는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견학의 필요성으로 일정에 넣었습니다. 끝으로 소요 예산입니다. 국외여비 1,642만 원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법정 최소경비로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4페이지 추진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외출장은 코로나 19 종식 이후 무안공항의 첫 정기항공노선 취항으로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트랑시와 우호교류 기반 구축으로 양지역의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의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000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호 안건 베트남 나트랑시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000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비도 개인 부담이 좀 있다고 그랬는...

○ 간사 000

인제 법정경비 이외의... 공무원들은 법정경비 이외의 금액이 발생되면 모두 자부담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 000

이 경비 안에서 다 소요될... 법정 외에... 주요 일정에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좀 더 저기하고 ...

○ 간사 000

예.

○ 위원 000

나쁘게 표현하면 외유성이다.

○ 간사 000

예.

○ 위원 000

이렇게 보여요. ... 여행사 측하고 해서 설령 거기 가서 캔슬이 나더라도 좀 더 저기하는 부분으로 몇 개 ... 했으면 좋겠다.

○ 간사 000

예.

○ 위원 000

… 달랠지나 이런 데는 거의 다 관광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디 선진지 견학… 베트남이 선진지는 아니잖아요.

○ 간사 000

예.

○ 위원 000

………… 체험시설 같은 경우도 … 방문이나 …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그다지 상관 없잖아요.

○ 간사 000

지금 저희가 알아보더니 커피도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 000

관심만 가지고 있지….

○ 간사 000

하고 있는 농가도….

○ 위원 000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 간사 000

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어제 그렇게 들었는데….

○ 위원 000

무안애가 제가 알기로는 재배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간사 000

그 신소득작목으로 해 가지고 제가 잘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료를 받아보니 없었는데 담당직원은 있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 위원 000

… 원래 그런 것은 … 우리보다 잘사는 뭐 일본이라든가 앞서가는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와닿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동남아 하면은 먼저 인식 자체에서 그냥 아 저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프로그램 자체를… 여행사하고도 이야기 해서 … 하다가 보면 캔슬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니까 없더라 하면서. … 어찌됐

든 간에 ... 공직자들이나 의원들이 나가면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게 그거잖아요. 다 갔다가 돈 외유니 어쩌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한꺼번에 매도 당할 수도 있고...

○ 간사 000

일단 지역 선정은 저희가 무안공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정하다 보니 굉장히 범위를 확대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일단은 내실 있는 국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000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방금 000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항상 어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연수가 있을 때 항상 우리 언론에서는 정말 정밀한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결과적으로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 우리가 무안군의회 차원에서라도 조금 이렇게 이 부분이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고 오시고 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갔느냐라는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다뤄지게 됐을 때 이러한 내용은 ... 이런 계획서를 작성할 때요. 이것은 뭐 국민 일...로라고 하면 기자들의 시선이거든요. 기자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아 이 목적으로 가는구나 이런 정도는 돼야지 이 계획서가 완벽한 계획서예요. 우리가 기자들의 시선이라는 것은 국민의 시선이니까 기자 시선에서 보더라도 이게 납득이 가고 이 정도까지 이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스스로가 내용들을 보면 ... 달랠, 나트랑 이동, 대성당 견학 이것 자체가 지금 이번 무안군의회 나트랑 지금 ... 하는 것에 있어서 본질적 목적이라고 보기에 굉장히 납득이 어려워요.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우리 주무관들이나 의장님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왔다 한다면 이 당연히... 스스로 이것은, 아 이거 우리가 관광 외유성으로 본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언어들 너무나 많이 해놨더라고, 보니까. 이런 기본들을 조금 정돈... 그래서 000대표님도 말씀하셨습시다마는 이 단어 선택에 있어서 봐보십시오. 나트랑 포나가르 대성당 견학, 이 견학이라는 말 자체를 학생들에게 둘러본다는 관광이거든요. 볼 견 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트랑 포나가르 대성당 견학한다면 여기 구체적으로 일정의 목적, 목표 명확하게 드러나는 언어들 선택하면 나트랑 포나가르 대성당이 유명하다 한다면 여기에서의 어떠한 방식으로 관광객들이 최선의 인프라를 활용

을 하고 어떠한 동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원들을 만약에 오래됐다 한다면 이런 역사 문화 보존을 어떻게 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를 위한 답사 이렇게 하면, 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광문화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세계적인 어떤 관광도시로 본다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이런 사원들을 문화재 보관을 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떤 동선에 따라서 그걸 관람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걸 운영하는 운영시스템을 보고 배운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 무안 관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단어 상에서 조금 애매한 어차피 기자들의 시선 입장에서는 여기 단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개념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그런 인문학적 이런 목적에 대한 언어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달랏 메린커피 농장 견학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안하고 커피가 뭘 상관이에요. 백이면 백 명, ...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달랏 메린커피농장 ... 견학 이렇게 한다면 베트남 사실은 이런 커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어떤 커피를 생산하는 거예요. 1일 생산하고 이렇게 운영, 가공을 해서 어떻게 판로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농산업 분야에 대한 그 판로수출, 재배에서 수출까지 이어지는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번 답사한다 이렇게 하면 아 우리도 충분히 선진농법을 위해서 우리가 무안양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한 프로세스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아 그렇구나 커피산업을 하나의 매개 요인이고 이런 프로세스를 벤치마킹 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무안군 농산업도 앞으로 수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언어를 써주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들이 그래도 현장 답사를 가는구나 그걸 배워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면...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해보면 국외출장에 대한 갔다온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요. 이것은 참고만 하시죠. 이번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성과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다녀와서 이렇게 이렇게 현지시찰을 갔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 왔고. 우리도 사실 대학교 때요. 우리 학생들 해외로 연수 가잖아요. 갔다 오면 다 성과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과 보고해서 공유합니다. 다녀오지 않는 일반학생들도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적 목적이라든지 성과 공유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녀와서 이 리포팅을 당당하게 되면 의미가 있죠. 또 하

나는 제가 ...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이번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논란이 계속 이렇게 늘 우리가 22개 시군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 할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꼭 현지 대학하고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대학. 현지대학들은 그 지역사회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어레인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대학 방문하셔서 그쪽 대학 주요 이 사업을 만든 전문교수님 한 분 오셔서 특강도 한 번하시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바라보는 현안 분석들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의 그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이잖아요. 언론인들과의 티타임도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학이나 현지 대학 언론 같은 경우는 사람을 오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역 언론 이야기하면서도 무안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시선들을 녹여주면 누가 보더라도 토를 달게 없죠. 내용은 여기의 내용은 이 방식대로 간다하더라도 이게 이런 내용들을 적절하게 좀 가미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간단 이야기죠. 이게 잘못됐단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무안의회차원에서 이 프로세스를 한번 점검하고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한번 반려해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것 같다. 실제 사실은 나트랑시 같은 경우는 우리군하고 협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다양한 산업이라든지 우리 산업으로 좀 교차해가지고 홍보하고 공유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우리 자매결연 맺어있지는 않죠? 우리 무안군청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가지고 서로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로 이러한 구체적인 행정에 관해서 명사들이 좀 들어가 주면 누가 보더라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여행사에서 와서 리포팅 하다보니까 언어들이 전부다 관광 언어들이예요, 전부다. 견학, 대성당. 거기 가서 뭘 할려는 거예요. 왜 거기를 가느냐라고 말하려면 설명하기 어렵죠. 한번 보러 간다 이것은 조금 지금은 납득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조금 더 하시고. 박근남 대표님이 말씀하신 선에서 보완하시고. 이 다음번 추진할 때 좀 이 부분들을 ... 마련해 가지고 해야지 다시 한번 또 즐겁고 의미도 있고 또 갔다 와서 ... 해 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이래버리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봐서는 가서 욕먹고 올 것 같으면 안 다녀온 것 만 못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만 더 보완했으면 훗날에 ...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간사 000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 000

무안공항과 나트랑시 공항 정기항공노선의 취항의 의미를 부각한다는 점에 있어서 국외출장에 의미를 감안하는 것까지는 출장목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대외 홍보라는 말이 있는데 대외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대외를 어디 대외를 말하는 것인지? 이게 목적은 의미 부각에 뭔가 추가적인 목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어로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일정에 있어서 가장 메인이 되는 주된 일정이 11월 1일 일정인데 나트랑 시청과 나트랑시 인민위원회 이게 가장 메인이고 ... 이게 보시면 그 의정활동이라든가 뭔가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지 그런 경유라든가 몰라서 몰랐는데 두 위원들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행사에서 뭔가 그런 추가자료를 주시다 보니 그 외의 ... 현장이라든가 그 뒤의 역사문화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자료가 들어 있음에서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관련된 인민들의 우호에 대한 그런 자료는 생각보다 조금 비교했을 때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무안군의회 가시는 게 추후에 나트랑하고 정기노선을 취항했을 때 추후에 뭔가를 교류를 강화시킬 의향이라면 그 어떻게 인민회하고 우호교류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 가면 좀 더 국외출장에 의회이라든가 그...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예의 ...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족을 달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마지막에 포나가르 사원, 대성당에 있어서 이제 6페이지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하신 게 그 것을 이제 강조하시고 싶으시니까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 없지 않아 있다. 의미부여할 때 이런 점은 고쳐야 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 그 앞에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수정하신다면 의미 있고 필요한 국외출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000

의원님들이 9명 중에서 지금 5분만 가지않아요.

○ 간사 000

예.

○ 위원 000

걱정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분이 있으니까 못 가게 되지만 여기 위원님으로 있는 000 위원님도 안 가지않아요. 해외를 간다고 하면 같이 간다든가 한꺼번에 간다든가 어떤 일체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 좋은데 안 그러면 1차로 이번에 갔으니 2차로 안 가

신 분들이 어떤 계획이 있다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같은 경우로 보이거든요, 이 자체가. 의원님들 각개 움직이는구나. ... 이 언론인이 바라볼 때는 뭔가 문제점을 찾아 내요. 저도 봤을 때 이게 보이거든요. 이런 자체가 제가 아까에도 이야기 했지만 11월 4일, 저도 공항 활성화대책위원회 홍보 위원장이예요. 11월 4일 자부담 20만 원 내고 거기를 가자고 000 회장이 그러셨거든요. 그건 냄새가 나거든요. 저 안 갈랍니다. 갔다오면 뻥히 뒤통수 맞을 것 같은데 그게 갔다 오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니까 의원님들이 왜 네 분들은 안가시 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보면 옛날에도 과거에도 한 번 그런 게 있었다고 의원님들 안 가신 분들 한 두 명 때문에 비슷한 말이나 나온 적이 있어요. 의원님 때문에 안 갔냐고 해가지고.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앞으로는 추진을 안 하거나 1, 2차로 가신다든가 한꺼번에 움직여준다든가 하면되는데 나중에 하다가 마는 거냐, 뭘 문제 있어서 안 갔어야 의원님이 대답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이 있으니까 안 갔어야 해버리면은 ... 그런 어떤 같이 움직이는 의회 차원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간사 000

이번 당초 계획에는 모든 분이 한꺼번에 참여를 하시기로 하셨었는데 의원님들이 각각의 개인적인 일정들이 있으셔서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여를 못하게 되셨고요. 내년에는 다 한꺼번에 가자 그렇게 얘기가 그렇게 얘기가 되셨었거든요. 4분까지 가버리면 너무 많이 가신 거라...

○ 위원 000

제가 알 바는 아닌데 ... 예산은 9명 분을 편성했을 꺼 아닙니까? 잡혀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간사 000

그렇죠.

○ 위원 000

그분들이 가면은 직원들이 ... 못 가는 건가요?

○ 간사 000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저희 의회도 아시다시피 하반기 되면은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럼 내년에는 한꺼번에 가자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 위원 000

… 정례회 11월에 있으니까 그런다고 봅니다만 늦게 간 사람들은 남은 예산 쓰기로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편적으로 의회가 어디를 간다든가 하면은 연말이 되어 가지고 갑자기 가고 뭐하니까 그냥 남은 예산으로 간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 조절도 앞으로 갈 때는 11월, 12월이 아닌 그 전에 갔다 오고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요.

○ 간사 000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000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실 현지 일정 바뀔 수도 있어요. 굳이 여기다가 딱 메인에다가 이런 거 보면 설사 거기에 좋은 의미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 언론인들한테 건수 잡히기… 저는 언론인이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그래서 현지 일정은 바뀌도 … 여기다 이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어떤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언어들로 해놔야지 할 말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다 인터넷이 되고 그러니까 나트랑시청 방문했다 한다 하면 현장 찍고 보도자료 작성해서 카톡으로 보내와서 그걸 현장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요즘 시대는 그럼 확실히 그 의회는 열린의회라고 보여줄 수 있고 항상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후에나 딱 틀에 박힌 이런 게 아니고 현지에서 … 보도자료가 나오면 다 다뤄주고 게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이 바뀌는 부분은 현지사정 … 이 메인으로 보여준 영역에서 딱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언론인들이 아이고 이거 건수 잡아주… 역시 건수를 알아서 물고… 저도 국외출장이나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가면 꼭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언론인들한테 지적하라고 주는 것밖에 안 되면 그렇게 될 이유로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죠.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 무안군의회 …성 거리가 없으니까. 그것 조금 다음에 할 때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무안군 나트랑시 간 우호교류 기반 마련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모색을 위한 무안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국외출장계획 심사 건은 논의한 대로 위원회 의견 권고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 000
수고하셨습니다.

(08시 51분 회의 종료)